

보도시점 배포 즉시
(사진 11시 이후)

배포

2026. 9. 11.(금)

조달청, 직원이 직접 만든 AI로 '조달업무 혁신' 속도낸다

- 계약 검토, 법령 상담·공문 작성까지... 현업 직원이 개발한 AI 서비스 7종 공개
- '인하우스 AI 개발 TF' 성과 시연... 직원 주도 AX로 체감형 조달서비스 확대

조달청은 직원들이 직접 개발한 인공지능(AI)을 계약 검토, 법령 상담, 공문서 작성 등 실제 조달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공공 행정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11일 '인하우스(In-House) AI 개발 TF 성과 시연회'를 개최하고 직원들이 직접 개발해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 AI 서비스 7종의 성과와 활용 사례를 공유했다.

'인하우스 AI 개발 TF'는 개발의 전 과정을 외부에 맡기지 않고 조직 내부에서 직접 수행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조달청은 디지털공정조달국장을 팀장으로 직원 26명이 참여하는 TF를 올해 2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특히, 조달청은 업무망 내 안전한 AI 개발·배포 환경을 자체 구축하고 자연어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바이브 코딩(Vibe Coding)' 방식을 활용하여 직원이 직접 AI 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개발된 주요 서비스는 ▲조달법령 AI 상담 ▲보도자료 및 인사말씀 초안 생성 ▲공문서 기안문 자동 작성 ▲국회 업무관리 ▲지능형 업무자동화(법령 검색 및 스케줄러) 서비스 등이다.

◇ 조달 도우미 AI ...법령 상담부터 보도자료 생성까지

‘조달법령 AI 상담’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최신 법령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계하고 내부데이터와 결합하여 상담 챗봇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물가협회 자료와 표준시장단가·표준품셈 등을 활용해 규격별 단가를 검색하는 기능도 추가하여 조달업무의 법령 및 정보 검색 시간을 줄였다.

‘보도자료·인사말씀 초안 생성’은 보고서나 행사계획 등을 입력하면 AI 에이전트가 분량·강조 내용·스타일 등 지정한 형식에 따라 보도자료와 인사말씀 초안을 신속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반복·유사업무...이젠 조달청 직원이 만든 AI가 돕는다

‘공문서 기안문 자동 작성’은 수요기관과의 업무 협의, 입찰공고 게시 등 계약담당자가 반복적으로 작성하는 공문서를 표준 서식에 맞춰 자동 생성토록 개발하여 반복적인 문서 작성 업무를 간소화하였다.

‘국회 업무관리’는 국회 요구자료 처리 과정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접수된 내용을 분석해 소관 부서를 자동 배정하고 과거 유사 질의 및 답변을 추천하거나 전문 검색을 지원한다.

‘지능형 업무 자동화’는 법령 검색시 인용·피인용 관계를 한 화면에서 볼 수 있게 하여 조달법령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직원별 할 일 목록을 관리 및 알림(지능형 스케줄러) 기능을 통해 일상적 업무를 자동화했다.

아울러, 모든 AI 서비스를 한 곳에 모은 ‘조달 AI 포털’도 함께 개발·운영하여 접근 편의성과 관리 효율성은 물론 추가 개발되는 AI 서비스에 대한 확장성도 높였다.

이 서비스들의 가장 큰 특징은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개발에 참여한다는 점이다.

현업 담당자가 업무 절차와 필요한 기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만큼 실제 업무에 필요한 기능을 신속하게 반영하고 지속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 또한 장점이다.

조달청은 TF뿐 아니라 각 현업부서에서도 AI를 활용한 업무 개선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와 성과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우수직원 포상 등을 통해 직원 주도 AX 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공공조달 AI 전환의 출발점은 직원들이 매일 수행하는 업무에서 개선점을 찾아 AI로 직접 해결해 나가는 것”이라며,

“직원들의 조달업무 전문성과 AI 기술을 결합해 조달업무를 지능화 및 효율화하여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조달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디지털공정조달국 인공지능조달혁신과	책임자	과장 김항수	042-724-6378
		담당자	사무관 정현섭	042-724-6380